

## 전남도민 30년 숙원 의대 설립 지금이 '골든타임'

**전남 국립의과대학  
반드시 설립해야**

〈1〉 의대, 전남에만 없다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 속에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남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다. 도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제 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대와 부속병원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의 필요성, 추진 과정, 당위성 등을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섬, 해안, 산골 등 전현의 자연 자원을 간직한 전남은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사각 지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대체복무중인 공중보건의, 닥터헬기, 병원선 등을 통해 간신히 최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갈수록 전남 시·군의 의사와 의료시설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전남의 인구, 자본 등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를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구 180만명의 전남도는 세대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전북(인구 175만명)에 2개, 충북(159만명)에 2개, 강원도(152만명)에도 4개가 있는 의대가 전남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다.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이어져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4명으로, 전국 평균인 2.18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공중보건의사도 지난 2020년 637명에서 지난 2023년 586명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줄어 공공의료 시스템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국립의대의 부재는 적은 의사 수, 미흡한 의료 서비스로 이어지며 도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역외로 나가는 경우가 절반에 육박하고,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강원·경북과 함께 상위권에 있다. 전남지역 환자 1인당 의료비도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역외로 유출되는 의료비는 이미 5년 전에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도는 30년 전부터 꾸준히 정부에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요구해 왔으나 의료계의 집단 반발과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무력감과 패배감이

전남 인구 180만에 고령자 많아  
섬·농어촌 지역 의료 사각 심각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 상태  
정부 설립 약속·전남도 공모 착수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고개를 들었으나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국립 의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다시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전남도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 대토론회, 지역 토론회, 포럼 등을 이어가며 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알리려나갔다. 김 지사 역시 앞장서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건의했으며, 전문가·경제계·학계·주민대표·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며 분위기가 달랐다. 지난 1월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 유지를 염원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남도와 도민의 노력은 정부를 움직이게 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행정 수반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괄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에서 대학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달 20일 의료개혁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의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속하게 후속 작업에 들어가 정부 관계자, 여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부에 대학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이 최적이란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추진 시기를 놓칠 경우 2026년 신입생 정원 배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정부 계획이 없어 전남에 의대를 설립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의대를 신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최근 신설된 국립의대인 강원대와 제주대도 정부가 먼저 신설 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의대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 오늘까지 '광주의 날' 행사  
의시작을 알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의 주요 현안들을 국회의원들과 공유하고 광주를 소개하기 위한 '국회, 광주의 날' 행사가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광주만세'를 외치며 행사를 이끌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동훈 "의료문제 좋은 대안 마련에 공감" 이재명 "민생 관련 많은 부분 합의 있었다"

여야 대표, 양자회담 성과 강조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행된 양자 회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저희가 생각을 같이 했다"면서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고, 민주당도 그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또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해드렸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들었다"며

"(여야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합의사항을 발표한 지난 1일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중심으로 정치하자고 의기투합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

딤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촉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취지를 이해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결국 대화가 정치"라며 "민생을 위한

광주 전남, 중증외상 전문병원이 없다 ▶6면

굿모닝 예향 - 멋과 함께 목도 유람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안방서 매직넘버 즐기기 ▶22면

정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치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투쟁의 정치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양측이)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면서 "허심탄화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간 자리였으며, 앞으로 여야 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세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 자영업자나 가게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토론'이 아닌 '회담'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항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순위 1위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에약 4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9월 30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가릉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C)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쇼,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진세선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롯데관광 특별 초청 게스트!  
일루션스타 이은결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코스타 세레나에서 펼쳐집니다.

Costa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35m · 수용인원: 3,780명 · 승무원: 1,100명

GRAND HYATT 제주  
예약 · 문의: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기타안내사항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체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①여행유의 ②여행지세 ③일수요금 ④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여행경비는 예약별 가상계좌로만 입금받고 있습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인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